

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추진

정부, 특별점검 후속조치·제도개선 방안 발표... 실효성 논란 지적도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의 후속조치로 피해자 구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특정되면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구제 시점이 나오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실효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검찰 수사 결과 최종합격자가 뒤바뀐 경우 등 피해자들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용비리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거나, 불합격자 이의신청 절차 등을 도입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도 일부 언급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채용비리 관련 사건으로 수사된 피해자를 50명으로 추산했다.

최대 50명의 피해자가 구제 조치에 따라 뒤늦은 합격증을 손에 쥌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같은 방침을 정했음에도, 실제 피해자가 다시 채용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먼저 이같은 피해자 구제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부정합격자의 채용비리 사실이 확정돼야 한다. 부정합격 사실이 법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 구제를 시작했다가 정작 무죄 판결이 나면 수습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합격자 본인이 채용비리에 직접 가담해 기소될 경우 직접 가담하지 않더라도 채용비리 사건의 공소장에 명시되는 경우 퇴출 절차를 밟기로 했다.

결국 수사가 어느정도 마무리되어야 피해가 가능해 진다는 뜻인데, 정부의 수사와의 건수가 109건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이 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김 차관은 "부정합격자에 대한 퇴출 문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부정합격자와 관련자가 기소될 경우 우선은 입부를 배제한 후에 다시 부처별, 기관별 재조사를 거쳐서 처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구제 요건인 피해자를 특정하는 문

제도 쉽지 않아 보인다. 부정합격자로 인해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확연히 드러나야 하는데, 적지 않은 비리 사례에서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채용공고를 공단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공고일을 임의로 단축한 뒤 내부 계약직원을 채용했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채용비리 혐의가 확정되더라도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것이 실상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별로 구제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김 차관은 "사안별로 피해자의 특성, 구제성 등을 공공기관이 판단해 피해자 구제 조치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구제 조치를 기관별 재량에 맡기면 같은 사안이라도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조사가 과거 5년간 채용 전반을 살핀 만큼, 상당한 시일이 지난 사건은 구제조치가 진행되도 실효성이 떨어진다 지적도 나올 수 있다. 만

약 2013년 채용과정에서 비리가 있어 특정 피해자에게 5년 만에 다시 채용 기회를 준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뉴시스

정부, 장기소액연체자 25만2000명 '추심중단'

정부가 장기소액연체자 25만2000명에 대한 추심을 중단하고 연대보증인 21만명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는 등 46만2000명에 대한 부채 경감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40만3000명에 대한 심사 결과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25만2000명, 1조2000억원에 대한 추심중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31일 기준 원금 1000만원 이하 생계형 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중 중위소득 60%(1인 가구 월 99만원) 이하에 보유재산 및 해외 출납국 기록이 없는 사람이 대상이다.

부동산, 자동차 등 보유재산이 있는 9만2000명과, 최근 3년 내 해외 출납국 기록이 1회 이상 있는 5만8000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단 추심중단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중 생계형 재산 보유자, 출입국 기록을 소명하는 사람은 다음달 내로 추가 추심중단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23만6000명 중 보유재산이 없는 21만명, 2조에 대해서는 즉시 채무면제 조치를 완료했다.

다음달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옥코레딧),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및 콜센터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이밖에 장기소액연체에 해당하는 국민행복기금 약정자, 개인회생·워크아웃 약정자, 민간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연체 채무자는 다음달 말부터 지원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의 연장선이다. 당시 정부는 장기소액연체자 약 159만명에 대한 채무정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뉴시스

이스타항공-KKday, 할인 이벤트 진행

이스타항공이 2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여행플랫폼 전문업체인 'KKday'와 함께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 동안 이스타항공 고객이면 'KKday'에서 제공하는 공항 픽업부터 와이파이, 각종 체험과 투어까지 여행에 필요한 상품을 최대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

이벤트 상품은 이스타항공의 운항노선인 일본, 대만, 홍콩,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 지역별로 다양하다. 대표적 할인상품은 일본 전 지역 무

제한 4G LTE 포켓 와이파이 10% 할인, 대만 버스 투어 10% 할인, 대만 호텔 픽업·샌딩 10% 할인, 대만 전 지역 무제한 4G LTE 포켓 와이파이 20% 할인, 방콕 아우타이 사일투어 20% 할인, 코타키나발루 카와카와 강 반딧불 크루즈 투어 20% 할인 등이 있다.

이용을 원하면 이스타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앱에서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진행하고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면 된다.

/뉴시스

LX, 선진지적관리시스템·공간정보기술 중동 전파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선진 지적관리시스템과 첨단 공간정보기술을 중동에 전파한다.

29일 LX에 따르면 오는 31일 진행되는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정보 인프라 구축 전략 수립사업 설명 세미나 준비를 위해 LX 실무단과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현지로 출국했다.

한국과 사우디 간 협력하에 처음으로 구축화된 이번 사업은 사우디 중장기 국가 운영계획인 '비전 2030'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한 기초 사업 일환으로 추진됐다.

LX는 사우디의 지적정보관련 제도과 인프라를 면밀하게 분석해 현지에 최적화된 선진 지적관리시스템 구축을 돕기 위한 '전략계획 수립 컨설팅'에 나서게 된다.

사우디는 지난해 10월 '한·사우디 비전 2030위원회'를 출범시킨 후 지금

까지 양국 간 실무회의와 면담을 지속해 왔다.

또 토지관리 분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지적정보체계 구축 장기 로드맵 수립'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한국에 컨설팅을 요청했다.

박명식 사장은 "한국의 공간정보 선진기술이 사우디 정부의 토지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도움을 주게 돼 매우 기쁘다"며 "새로운 글로벌 사업기회창출과 민간기업과의 해외동반진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사우디 비전 2030위원회'는 양국 정부간의 협력 플랫폼으로 제조·에너지, 스마트인프라·디지털화, 역량강화, 보건·의료, 중소기업 투자 등 총 5개 중점협력분야를 정해 양국 실무자간 구체적 협력 사업을 발굴해 오고 있다.

/뉴시스

오투그란데, 한달여 만에 100% 분양 완료

최적의 입지조건·미래가치 등 우수성 인정받아

제일건설이 12월부터 계약을 진행했던 익산 '동산동' '어양3차' 오투그란데가 한달여만에 100% 분양을 완료했다.

제일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12월 오픈 전부터 큰 관심과 기대를 모았던 익산 '동산동' '어양3차' 오투그란데는 혁신평면과 다양한 특화설계는 물론, 최적의 입지조건과 미래가치 등으로 심수요자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전세대 1순위 청약 마감에 이어 100% 분양완료를 통해 상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고 밝혔다. "동산동" '어양3차' 오투그란데의 분양성공으로 2월초에 익산시 금마면에 공급할 예정인 '비록산 더 테라스 오투그란데'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감이 한껏 높아지고

있다.

전북 최초 전세대 테라스하우스로 설계되는 '비록산 더 테라스 오투그란데'는 인근에 서동공원과 금마저수지는 물론, 다양한 산책로를 통해 자연친화적인 힐링라이프를 실현할 수 있으며, 아파트의 편리함과 단독주택의 쾌적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희소성과 함께 넓은 서비스면적을 통해 실사용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다양한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평면 자체도 각 층별로 전면테라스와 포켓테라스, 옥상테라스와 다락방 등으로 구성하여 소비자가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상품을 구성하였고, 다목적 펜트하우스와 다양한 수납공간은 물론, 최신 트렌드에 맞는 인테리어설계로 최대



제일건설이 12월부터 계약을 진행했던 익산 '동산동' '어양3차' 오투그란데가 한달여만에 100% 분양을 완료했다.

한 다양한 소비자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였다.

'비록산 더 테라스 오투그란데'

모델하우스는 익산시 인화동 1가 134-3번지에 위치하며, 오는 2월초 분양할 예정이다.

/익산=장영희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ivs.or.kr *전자우편 : jivs@hanmail.net